

가족의 Sexuality, 성(性)=성(聖)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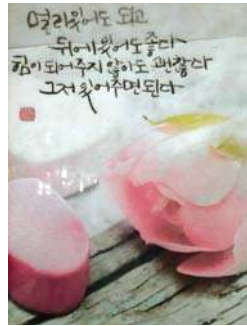
-틴스타는 나에게 마중물입니다

장남희 프란치스카 • 틴스타 교사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 주오.”

(아가 2, 10)

새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부대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절절하게 느낍니다. 문득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를 발견합니다. 그저 ‘같이’ 있다는 게 감사일뿐입니다. 얼마 전 어느 가게에 붙은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좋다. 힘이 되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있어 주면 된다.’ 이처럼 그저 있어만 줘도 좋은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성(性)을 성(聖)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心)과 생명(性)을 담고 있는 성(性)의 의미는, 상대방의 말(口)을 잘 들어주고(耳) 상대방을 왕(王)처럼 귀하게 받들어 주는(王) 성(聖)의 의미와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聖化)의 성(聖)이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성(性)=성(聖)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색하고 민망하고 난감해하지는 않으신지요.



성에 대해 궁금했던 첫질문. 첫기억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월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궁금함이었는지요. 그 반응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반응이 성을 대하는 가치관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안다면? 그때 엄마랑 아빠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지금의 엄마, 아빠에게 이 질문을 되돌려 여쭙습니다.

성을 가장 먼저 느끼고 보고 듣는 데는 어디일까요? 모두 '가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최초의 성교육 장소는 바로 우리 집이고, 최초의 성교육자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살았는지, 어른 구실은 잘 했는지, 배우자에게 사랑은 제대로 표현했는지... 우리를 보고 배운 자녀들은 거울처럼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없는 아이는 있어도 문제없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과 생명이 단겨있는 성(性)을 성(性)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일도, 살리는 일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틴스타는 몸을 통해 나를 이해함으로써 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틴스타의 이 오방색 별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지성적·영성적인 의미를 담고 빛을 발합니다. 여성(남성)인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남성(여성)을 만나 손을 맞잡으며 신체적으로 느꼈던 들만의 뜨거운 몸의 정서적 느낌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 지성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한남자와 한여자로 만나 한몸을 이루고자 하는 영성적인 알아차림을 하는 것. 이것이 틴스타가 추구하는 Sexuality입니다.

틴스타 안에는 성인을 위한 '총체적인 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은 내몸이 지닌 의미와 몸과 내감정의 조화,

마음 다스림, 성의 진정한 의미와 성을 이용하는 왜곡된 현실을 분별하는 힘, 생활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떤 기대와 헌신으로 부대끼며 살고 있는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며, 부모가 된다는 것(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나아가 사랑과 생명을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이용하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성폭력, 미투, n번방사건, 디지털 성범죄, 낙태, 영아유기 아동학대 등-을 우리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던스타의 가치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 (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nt Adult Responsibility), 던스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던스타 워크숍에서 만난 분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대학생들, 수도자들을 만나 함께 나누며 내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던스타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저 역시 던스타를 불혹(不惑)의 나이에 만났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많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내 안에 깊이 가라앉아있던 분화된 나를 기쁘게 마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던스타를 저의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이고 아빠일까요?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배우자인가요? 여태껏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길어올려 지금이라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반짝거리는 보석을 '함께' 찾아보는 일은 마음만 먹는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고 '내 생각엔 ~한 것 같은데, 너랑 신'이라고 말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신나게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보물

을 찾아내는 어마어마한 탐험.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나의 '선한 의지' 하나로 그분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제대로 써볼 기회이니 말입니다. "해봤는데 안되디다" 라고 속내를 털어놓은 분에게는 오늘 그 용기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순 때마다 똑같은 다짐을 되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해보고 다시 해보고 계속하다 보면 내사랑(愛)이 우리가족을 살리는(愛) 일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이게 바로 '성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이 Sex가 아니라 Sexuality라고 말씀드린 까닭입니다.

앞서 성(性)=성(聖)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性)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聖)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性)으로 무장하고 성(聖)으로 변화해 갈 수만 있다면, 내자녀들에게는 희망이, 빛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키고 '하느님의 뜻'으로 사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시편 139:13-16)라는 말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긴 채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분께서 '참 좋았다' 하시리라 믿어봅니다. '그저 있어만 주면 되는'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성화(聖化)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워크숍 참가 신청

<http://teenstar.or.kr> (한국 틴스타) Tel. 02) 727-2358



교육 및 참가 문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가정사목 Tel. 062) 390-2834